

새내기 사업

보내는 기쁨 : 11기 전어디협(전)

받는 즐거움 : 과 단위 총어학사회

0. 들어가며

10개월 후 우리 총어학생회의 모습은 어떠할까?

올해 성폭력학칙 개정, 생리휴강, 이동 여학생회 등 많은 성과가 있었고, 내년에 이를 계속이어갈 후에 일꾼들과 논의를 하고 있을까?

혹!! 한 해를 사랍도 많이 만나고, 사업과 투쟁도 나름대로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선거기간 곁에 남은 새 내기가 보이지 않는... 이런 암울한 미래가 우리의 것은 아니겠지?

10개월 후 현실은 지금의 우리가 만들어 가는 것이다.

바로 이 글을 읽고 있는 총여(부)회장님, 단대/과 부장님, 그리고 함께 하는 간부님들...

2월 셋째/넷째주 이 기간에 대부분의 학교에서 새로배움터 OT 등을 진행한다. 많은 (부)회장님들은 각 단위를 돌며 인사를 한다. 때론 괴롭기도 할 술도 마시고, 장기자랑도 펼쳐내 보이며 즐겁게 새내기들을 만난다.

새로 배움터를 다녀와서 남은 것은 무엇일까?

술로 찢든 몽롱함과 피로함? 아니면 많은 새내기들의 연락처와 나눴던 고민들?

선택은 우리 여학생회 일꾼들이 하자.

새내기를 만나는데 있어서 아무런 생각도 고민도 없이 빈둥빈둥 만날 것이 아니라, 계획을 가지고 내용을 가지고 만나도록 노력하자.

새내기들은 주입식 교육에, 내리먹이식 생활패턴, 성적중심의 경쟁부추김 등 수동적 초중고 교육을 10년 넘게 받아왔다. 올바른 가치관/인생관을 확립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반면 효순이미선이 촛불시위 때 23학년 선배보다 더욱 열심히 촛불을 든 진보적 생각을 안고 있는 이들이기도 하다.

다양한 생각과 고민과 꿈을 가지고 있을 새내기들!

사물을 올바르게 볼 수 있는 눈, 옳은 길로 나아가는 지향성 그리고 이를 실천해 나갈 수 있는 용기는 멋진 대학인으로 설 수 있는 필요충분조건이다.

새내기들이 능동적이고 주체적으로 자신의 인생을 설계하고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앞선 이들의 몫이기도 하다.

자~~ 지금부터 새내기 사업에 힘 빠져봅시다!!

1. 새내기 사업

1) 새내기 사업이란 @@a

모든 새내기들을 대상으로 올바른 관점과 의식을 심어주는 의식화 사업과 능동주체적으로 대학생활을 할 수 있게끔 이끌어 내는 전반 사업투쟁을 아우른다.

나아가 새내기들을 학생회 데두리로 묶어세워 항 후 학생회를 책임지는 일꾼으로 설 수 있도록 하는 중요과정이기도 하다.

2) 왜 중요한가 @@a

하나. 올바른 지향을 제시해 줌으로써 참된 대학인 사회인으로 설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것은 새내기들 스스로가 인생의 주인이 되게 하는 지름길이다.

둘. 이후 학생회를 책임지고 나갈 주체를 남기고, 학교운동의 전망을 밝히는 중요과정이다.

셋. 대학 초년 새내기시절의 의식화는 전반 대학문화와 새내기 스스로의 삶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친다.

2. 선배들의 준비와 자세

1) 선배인 나부터 올바른 지향성/여성관(의식화 내용 참조)을 가져야 한다.

새내기들에게 의식화를 잘 시키기 위해선 선배부터가 잘 서 있어야 한다.

선배들의 의식이 그릇 되어 있다면 첫 단추부터가 잘못 꿰어 진 것이다.

새내기사업의 첫 단추를 선배들의 올바른 지향성/여성관에서 시작하자.

2) 새내기 사업도 '알아야 한다..'

새내기와 얘기를 하면서 선배지식의 바닥을 드러내 보이는 일은 없도록 하자.

선배들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체계 내에서 혹은 스스로 교양시간을 갖도록 하자.

3) 새내기를 대상화하지 말자.

그 어떤 좋은 목표와 지향도 사람을 대상화시킬 때에는 빛이 나기 힘들다.

인간적 끈끈함과 깊은 유대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자신이 단지 대상화 된 것을 느끼는 순간 '선배, 미워요...흑흑ㅜㅜ...' 할 수 있음을 기억하자.

대상화하지 않는다는 것은 새내기를 끝까지 책임진다는 말과 통한다.

졸업후에도 웃고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 관계가 될 수 있도록 하자.

3. 실제 어떻게 만들어 가야 하는가?

1) 새내기 사업의 전망과 계획을 과학적, 구체적 그리고 장기적으로 세운다.

'생각이 앞서서, 주체의 역량이 떨어져서 혹은 생각지 못한 뜻밖의 일이 생겨서' 라는 핑계로 새내기 사업이 꺾이는 일이 없도록 하자.

새내기 사업은 여학생회, 학교 운동 나아가 대학사회의 미래를 결정짓는 일이다.

그러기 위해

<--- 새내기를 잘 알아야 한다

<--- 새내기의 입맛에 맞는, 구미를 확 당기는 참신함을 가지자

<--- 새내기 사업의 주체를 반드시 세우자.

<--- 단위의 상황에 맞게, 방도는 다양하다.

2) 의식화 내용과 방도를 세운다.

(1) 의식화 내용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가부장적이고 성차별적인 잘못된 여성관은 1986년생이라 해서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올바른 여성관과 여학생회의 역할 및 요구성을 알려내자.

생소하고 조심스럽기도 할 집단□공동체문화인 대학사회, 학생회와 학생운동의 긍정성을 알려내도록 하자.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만들어가는 학내외 투쟁□학자사업 및 당위성을 주변정세와 함께 이끌어내는 것 또한 중요하다.

① 올바른 여성관

- 반성차별
- 반성폭력
- 반가부장

② 이 땅의 현실

- 가부장적 사고와 성차별적인 문화
- 주한미군을 통한 미국의 본질과 철수의 당위성
- 인권공세□재배치 등 최근 동향을 통한 미국/일본의 패권야욕
- 국가보안법과 철폐의 정당성
- 6.15 공동선언 의의와 통일미래
- 이북 바로 알기

③ 참된 대학사회와 대학인

- 주체적이고 공동체 지향의 문화
- 진보적 성격과 선도□실천적 대학인
- 학생운동의 역할과 의미
- 학생회의 요구성과 소중함

④ 여학생회 역할과 요구성

- 여성문제를 알고, 인도하는 조직
- 여학우들의 이해와 요구를 받아 안는 대중기구
 - 성평등 대학문화□제도를 만들어간다
 - 여학우 스스로 주인으로 나설 수 있도록 이끌어 낸다
 - 여학우 복지/학자 관련하여 선두에서 해결해 나간다
 - 여성관련 전문성을 가진다

⑤ 학자 투쟁

- 반성폭력 학칙 의의와 재개정의 요구성
- 등록금 투쟁의 현황과 필요성
- 여학우 휴게실 비롯한 여학우 복지
- 생리휴강□ 여성학수업 필요성
- 사립학교법 등 전반 제도적 문제

(2) 방도

- ① 현수막/자보와 같은 기본 선전
- ② 온라인 활용

- 홈페이지/새내기들이 자주 가는 클럽
- 메일링(기간 서명 등을 통해 확보한 메일 주소 활용)

- ③ 강연/ 토론회
- ④ 새내기 수첩/신문
- ⑤ 새내기와 함께하는 과별(동아리, 야외 ...) 간담회
- ⑥ 여성관련 책 읽고 공모
- ⑦ 대면식 때 물어갈 내용 제출

3) 1년을 관통하는 대새내기 사업을 진행한다.

(1) 열린 창구

1년 내내 새내기 대상으로만 사업을 하자는 것이 아니다.

고민을 놓치지 않고, 새내기를 묶어 세울 창구를 열어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2) 새내기와의 접촉면을 넓히자

주체가 끊임없이 고민하고 챙겨내는 데에 길이 있음을 기억, 또 기억하자!!

- 모 학교에서 진행했던 '대표자 하루 한 새내기 만남'
- 새터 때 만난 새내기 하루 한번 식사하기
- 신문 등에 가로세로풀이/ 퍼즐공모 등 계기 마련

(3)시기별

장기적 안목으로 1년을 두고 하여야 한다.

-3월 중요 시기는 있는 법! 이 시기를 놓치지 마라.

새내기를 대상으로 사업을 집중 배치한다.(새내기 강연/간부모임, 소모임, ...)

-4월 출범식 준비단 등을 꾸려보자.

-5(9)월 대동제/여성문화제에는 새내기 자봉단□문예단을 모집한다.

-방중 실속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게끔 대중사업과 투쟁의 계기를 잘 살리도록 한다.
: 수련회/여성역사기행, 농활, 통일선봉대 등

4) 구체적으로 묶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들자.

새내기 의식화나 사업□투쟁에 함께 하는 등의 성과를 여학생회 및 운동대오의 조직적 성과로 남기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선 새내기들의 마음과 활동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마련해야 한다.

고려할 점은 각 여학생회의 역량과 상황, 학교 제반 분위기 등의 객관적 상황과 새내기들의 요구를 잘 알고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새내기들은 수준/취미/관심사/학생회 및 운동을 대하는 인식경도와 깊이/인생이나 대학생활의 목표 등 여러 방면에서 다양함이 나타난다.

이런 다양성을 무시한 채 어느 하나만을 새내기들에게 던져주고 '어서와, 우리와 함께하자'라고 하는 것은 부족함이 있다.

* 할 수 있는 몇 가지 예 *

① 새내기 간부

-새내기의 고민과 적극성을 높여줄 수 있다.

-간부를 하면서도 과 생활을 잘 할 수 있게끔 여학생회서 잘 지도해낸다.

-과중한 역할을 주어 지지거나 힘들어하는 상황을 미리 방지한다.

-학습과 조종례 같은 조직생활을 잘 가져가 소속감을 높여준다.

② 소모임

- 주제와 운영에 있어 다양하고 참신하게 만들어 간다.
- 소모임을 꾸릴 때에도 세네기들이 주제로 설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 일반 동아리/학회와의 차별성은, 여성시인/여성관을 바탕으로 두고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③ 『중여화학회 영상단』

- 여화학회서 진행하는 여러 사업투쟁을 사진/영상으로 알려 내거나 인터뷰 등을 진행
- ♀대상 -여화학회를 적극적으로 화우들에게 알려내려는 요구/의지가 높은 단위
- 촬영/편집 등 영상에 관심이 있는 세네기가 있는 경우

④ 일상사업 세네기 꾸림단

- 한양대/영남대서 진행한 화요카페/이동여화학회와 같은 사업에 고민해 볼 수 있겠다.
- ♀대상 -간부나 소모임의 높은 소속성을 부담스러워 하는 세네기
- 사업을 직접 만들어가고 싶거나 여성관련 등으로 실천활동을 하고자 하는 세네기

⑤ 여성화 강의 모니터링 요원단

- 반드시 세네기를 대상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하지만 초기의식화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세네기(과/단과대/중여화학회 일꾼들과 함께)에게 적극성을 보이는 것은 좋겠다.

⑥ 세네기 자봉단

- 이미 많은 단위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세로베올러/출범식/여성문화제/대동제/00페스티벌' 등 함께 만들어 갈 자봉단을 모집할 수 있다.

⑦ 여화학회 소식지 만들어단

- 신문/ 화장실 신문 등을 포함한 소식지 기획단을 꾸려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⑧ 여화학회 소장 책자 관리

- ♀대상 -여성 관련 책자의 체계적 관리가 요구되어지는 여화학회
- 독서에 관심이 있는 세네기가 있을 때
- 독서 관련 소모임을 꾸리기엔 역량 등에 있어 부족함이 나서는 경우도 좋겠다.